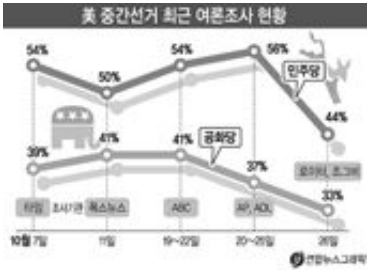


11·7美 중간선거

상 7대 관전 포인트

대북정책, 강경이나 대화나



오는 7일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7대 관전포인트 ▲쟁점과 전망 ▲북핵과 FTA에 미칠 영향 등 3회에 걸쳐 조망해본다.

러 수세에 몰렸던 공화당 후보들은 막판에 동성결혼 문제가 부각되자 '역전의 카드'를 마련한 것처럼 희색이다.

◇대북정책과 이라크전에 미칠 영향=선거결과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지배하게 되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 특히 기존 대북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낼 경우 민주당의 견제역할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08 대선주자들 각개약집하나=2008 대선의 징검다리 성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행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공화당이 참패하면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줘 공화당 차기주자들이 부시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시 레임덕 가속화될까=공화당이 상하원 중 최소한 한곳을 민주당에 뺏길 경우 지지도가 36~37%선으로 주저앉은 부시 대통령은 심각한 레임덕 현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이란 인근 걸프 공해상에서 실시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상봉쇄 훈련에 참가한 한 이탈리아 병사가 기상의 적함을 수색하기 위해 군함에 오르고 있다. /비레인AP=연합뉴스

걸프만서 美 주도 PSI 해상 저지 훈련

中 불참...한국 3명 참관

이란이 핵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30일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상봉쇄 훈련이 바레인 앞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10여시간 진행된 이 훈련에서는 이탈리아군과

바레인군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관련 재료를 운반하는 가상의 적함을 수색하는 시범을 각각 2시간씩 선보였다.

이 훈련은 2003년부터 20여차례 실시됐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험 성공 발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채택된 뒤 처음 열리는 데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과 근접한 지점에서 열려 특별한 이목을 끌

었다. 이 훈련엔 미국, 호주, 바레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군함, 항공기 등을 제공했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하는 등 20여개국에 참가했지만 중국은 불참했다.

한국에선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해경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연합뉴스

11·7 중간선거는 2008 미국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시금석이다.

민주당은 반(反) 부시, 반(反) 공화 정서에 편승,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탈환하겠다고 버리고 있고, 공화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막판 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후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미 중간선거의 관전포인트를 점검해본다.

◇공화당 수성이나 민주당 탈환이나=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지난 1994년 이래 12년간 상하 양원을 장악해온 공화당에 맞서 의회를 탈환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선거는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 하원의원 433명(2명 사망으로 공석) 전원을 새로 뽑는다. 또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 현재로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유력하며, 의석차를 몇 석으로 벌리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반면 상원은 박빙의 시소게임을 벌이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는 전망하고 있다.

◇승패 판단 기준=공화당이 현

- ① 공화 수성이나, 민주당 탈환이나
- ② 공화, 상원 지켜낼까
- ③ 남부 삼각지대 표심은
- ④ '동성결혼' 쟁점화되나
- ⑤ 대북정책·이라크전 영향은
- ⑥ 조기 대선정국 접어드나
- ⑦ 부시 레임덕 가속화될까

재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한 곳에서라도 패배하면 민주당 승리, 공화당 패배로 규정된다. 대체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패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상원을 지켜낼 것이냐가 관심사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승리하면 참패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계지 게임' 주요 격전지 항배=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전지는 하원은 20여곳, 상원은 5곳 안팎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

다. 너무나 치열한 박빙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유권자들 표 1~2%의 향배가 이번 선거 관전의 명암을 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쟁점 투표에 결정적 영향 줄까=이번 선거쟁점은 초반에는 주로 안보 대 경제 문제가 부각됐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라크전 후유증을 부각시켜 공화당의 단골메뉴였던 '안보 카드'로 공화당을 역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반전(反戰) 기류 등에 휘말

막바지 득표 작전에 여념이 없다.

또 하와이주에서는 도나 김 상원의원과 실비아 장 루크 하원의원이 상반기 예비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중간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상대 후보들이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 3선과 5선의 기대가 높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한인 17명 주 상·하원 선출직 도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강석희 어버니 시의원이 한인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강력한 지원을 업고

재선을 노리고 있고 메리 정 하야시 주하원 18지구후보와 미셸 박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 후보,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 후보가

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스텐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회의에서 미국과 인도, 중국을 교도 협약에 동참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온난화 방지 비용 9조 6천억불"

英 정부 보고서 "1,2차대전 비용 상회" 경고

온난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세계에서 수 억명이 굶주림과 물 부족, 홍수 등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전세계가

온난화로 인해 치러야 하는 비용은 9조 6천억달러로 1, 2차 세계 대전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 정부 위촉으로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인 영국 정부의 수석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텐 경이 작성한 700쪽의 방대한 온난화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지할 경우 5~20%에 이르러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

작업자에게 적합한 리얼타임 중국어회화 최고의 학습시간!

270,000원을 돌려준다구?

왜? 어째서?
 1. 270,000원 환불
 2. 270,000원 환불
 3. 270,000원 환불

리얼타임 중국어회화

www.littechina.co.kr

TEL: 02-333-9582

LO JIMIN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LOWE'S, TNGT, 38, infomart, VASS GROUP

시영모교 남지점

LO JIMIN 상설할인마트 서빙점 TEL: 062-511-0249